



KB 국민은행

필리핀 팡가시난팀 11월 보고서

김민철, 김혜지, 이해진



CONTENTS

1. 활동지 이야기

덤프사이트

푸가로

그린하우스

2. 중간평가 이야기

3. 그 외의 이야기

리더십 트레이닝 in San Carlos

두 번의 여행

4. 우리의 이야기

1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홈스테이

푸가로 EAST
데이케어센터

푸가로 WEST
데이케어센터

swimming lesson
아띠집 대청소

휴식

8

9

10

11

12

13

14

휴식

덤프사이트
Right side

덤프사이트
Right side

푸가로 EAST
데이케어센터

푸가로 WEST
데이케어센터

푸가로
그린하우스

바기오
여행

15

16

17

18

19

20

21

휴식

덤프사이트
Right side

덤프사이트
Sir 팝스.

푸가로
with Jake

푸가로 WESTD.C
with Choco, Emong,
Teddy, Kiehl, Louie,

푸가로
그린하우스

휴식

22

23

24

25

26

27

28

산타크루즈
말라시키 방문

중간평가

중간평가

휴식

리더쉽 트레이닝
in 산카를로스

리더쉽 트레이닝
in 산카를로스

휴식

29

30

휴식

덤프사이트
Left & Right

첫 번째 장



활동지 이야기



DUMPSITE

덤프사이트 11월 활동 요약

- Right side만 방문? 아니 둘다 방문하기로 하자!

9월 보고서에서 언급했다시피, right side에 비해 left side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현저히 적다. 아띠 클라쎄를 진행하면 right side에선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left side는 4,5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10월까지인 월요일-right side, 화요일-left side 번갈아가면서 방문했는데, 11월부터는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화요일도 right side에 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경 간사님께서 “left side 아이들을 right side로 불러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23일 방문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다만 아직 어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 left side 아이들을 right side로 불러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회의를 통해 30일부터 9시까지 도착하여 left, right 모두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몸은 힘들지만, 덤프사이트의 모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로 멤버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하였다.

- 아띠 클라쎄 진행순서

1) 애들아, 손부터 씻자!

2) “알파벳 공부하고 싶은 사람~ “

매일 알파벳 3개씩 진행. work sheet를 준비해 가는데, 점선이 미리 그려져 있어 아이들이 쉽게 따라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 모으기 보단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기다리곤 한다. 보통 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작은 아이들은 따라서 앉곤 한다.

3) 월요일, 화요일 중 하루(보통 화요일)는 Daycare center 활동에서 했던 만들기 수업 등을 진행하여 ‘덤프사이트 일일 데이케어 센터’ 된다.

4) 수업이 끝나고 자유롭게 놀면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치료를 해주고 마무리 한다.

Dec, 9th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종이를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덤프사이트 아이들과는 애벌레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종이를 연결하면서 애벌레보다도 더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이 완성됐다. 일일이 도와주면서 일관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면 아이들의 창의성을 더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4회(10,16,17일) 알파벳 A~F까지 Right side

Dec, 10th,
16th, 17th



10일에는 엘사, 올라프 색칠공부를 하고 16일에는 알파벳 A,B,C를,
17일에는 D,E,F를 공부했다.

큰 아이들은 세 개의 글자를 금방 완성하고나서도 “더 주세요!”를 외친다.
다만 어린 아이들은 연필 잡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럴 땐 아띠들이 한 명씩 맡아
한 자 한 자 따라 써주며 연습하게 한다.

이날(16일), 한국 교회에서 선교 차원으로 덤프사이트를 방문했다. 아띠들한테 ‘귀한 청년들’이라고도 했다(하하). 그들의 방문, 그들의 행동을 보며 아띠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기로 하자.



11월 덤프사이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짜증이 났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오자마자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상한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선교?활동을 한 것이다. 온 사람중에 한 분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정말 좋은 말이었지만 말은 나눈다고 하면서 행동은 자기들이 이러한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을 담기위한 목적을 둔거에 대해서 정말 보기 안 좋았다. 단지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안되는 한국말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속사포로 기도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바로 돌아 갔는데 정말 불쾌했다. 특히,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던 분은 나누어 준다면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다.

종교를 믿는 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에밀리오

나도 교회를 다닌다. 선교 활동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지켜보면서 불편한 점이 몇 군데 있었다. 일단 같이 온 필리핀 현지 친구들이 동등한 팀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 분들의 활동, 기타 반주를 위한 보조 역할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팀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자리에서 어떤 분의 지시를 듣고 기타반주를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덤프사이트에 와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정의 마무리는 가져온 쌀을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가져오신 핸드폰을 잃어버리셔서 덤프사이트 사람들이 함께 찾아주기도 했다.

덤프사이트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도 먹을 쌀을 주니 좋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 보려 애썼다. 과연 무엇을 위해 나는 이 곳에 왔을까.

엘레나

그들이 찬양을 하던, 통성 기도를 하던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이곳 덤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였다. 그래서 귀로는 이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눈으로 덤싸 사람들 유심히 지켜봤다. 내가 생각했을 땐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지만, 덤싸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일말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아피 클라씨 부지를 점거(?)하는 바람에 수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다. 어서 빨리 사라져 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었다. 이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나서 우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후로 자꾸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왔냐, 뭐하는 청년들이냐.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도 바쁘는데 귀찮게 했다. 평소 같았으면 어른이니까 예의바르게 행동했을 텐데, 이때는 그냥 무시했던 것 같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순간 중요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이들이 덤싸 사람들에게 쌀을 주는 모습을 봤다. 덤싸 사람들이 오늘 밥을 넉넉히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조금 고마웠다. 선교 목적이든,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덤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터였다. 다만 이들의 수혜적인 태도가 덤싸 사람들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마리나

Dec, 23th



원래 진행하던 알파벳 work sheet가 부족하여 임시로 A부터 M까지 함께 있는 work sheet를 준비해 갔다. 급작스럽게 준비되어 work sheet가 부족했는데, 그 대신 아이들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보경 간사님과 함께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보경 간사님이 돌보시던 아기가 실례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캔을 밟아 발을 심하게 다친 아이를 아띠들은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해주었다. 아이를 보며, 아이를 치료해 주며 아띠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자.



아이는 원래부터 덤프사이트를 맨발로, 알몸으로 잘 뛰어 다녔다. 이전엔 나프탈렌을 사탕 인줄 알고 먹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그만큼 장난꾸러기 아이다. 하지만 계속 되는 이러한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일차적으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말썹꾸러기 잘못이다. 신발만 제대로 신고 다녔어도 이정도로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아이다. 부모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아이가 아무리 장난꾸러기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충분히 교육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알게 된 사실이 아이의 부모가 정상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이의 특별한 행동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덤프사이트에 살지 않았다면 다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가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그 바닥이 모래인 것과 유리나 캔이 즐비한 땅인 것은 천지차이다. 아이가 다치고 치료해주는 것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마리나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는 이 정도 상처가지고는 병원에 가지 않는단다. 나는 이걸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해! 라고 내 의견을 주장해야하는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고 아이의 상처도 지금은 놀랄만큼 회복되었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서툰 우리때문에 아이가 많이 아파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만 보면 'Ayaw' (싫어)를 외치며 도망을 다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애를 붙잡고 상처 치료하는데 진을 다 뺐다. 상처 치료 안한다고 그냥 알파벳 공부하자고 해도 안 온다. 이 아이가 아팠던 경험때문에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솔직하기때문에 무섭다. 특히 모든 것이 관계로 연결되는 아이들과의 시간.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건 당장 눈 앞의 행위로 도출되서 눈 앞에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 행동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를 염두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엘레나

아마도 11월 초 였던거 같다. 활동을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맞이해주던 귀염둥이 아이가 캔을 밟아 발바닥이 크게 찢어진 것이다. 상처를 보자마자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안타까워했다. 한국에 부모님이었다면 아마도 기겁을 하고 병원에 데려가야하는 상처였기때문이다. 발바닥이라 잘 벌어지는 것을 감안해 좁은 간격으로 꼬맨다면 적어도 10바늘 이상은 꼬매야 하는 상처 였다. 하지만 코디네이터들도 괜찮다고 어릴 때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길래 뭔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걸 못 봤다면 모르겠지만 보고도 어찌 할 수 없다는게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었다.

에밀리오

6회(30일) 변화의 시작 Right & Left side

Dec, 30th



9시에 덤프사이트에 도착하여 먼저 left side로 향했다. 이날 **left side의 장학생**이 탄생했는데, 바로 **구스팅**이 그 주인공이다! 비록 아띠 클라씨 학생이 구스팅 혼자였지만, 차분하게 work sheet를 완성해서 아띠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work sheet를 작성하기엔 아직 어린 친구에겐 알파벳 플래쉬 카드를 보여 주면서 따라 말하게 하였다. ‘D, Duck’을 알려주는데 마침 오리가 옆을 지나가서, 진짜 오리를 가리키며 “Duck”을 외쳤다고^^

6회(30일) 변화의 시작 Right & Left side

Dec, 30th



Right side에선 여느 때처럼 알파벳 work sheet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H, I, J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이들의 학습 열정으로 후끈 후끈했다.

간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보통 데이케어 센터엔 수업이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이 꼭 있다. 이에 덤프 사이트 일일 데이케어 센터인 아띠 클라씨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기로 했다. 보통 수업이 끝나고 사탕을 주곤 했는데,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과자나 빵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를 실행한 30일 수업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겪게 된다. 수업을 잘 마무리 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과자를 한 개씩 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나가던 어른들도 달라고 하는 등 과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순간 멘붕!에 빠진 아띠들. 목적,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혼란스러워 했는데.. 이들의 생각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자.

간식을 주겠다고 시작했던 건 되게 사소하게 시작했다. 그냥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참여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하루는 덤프사이트 아이들에게도 푸가로 아이들과 더 붙어 좋은 간식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웨하스를 가지고 갔더니 모두 간식을 주던 킴에게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아이들이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른들을 속이면 원하는 걸 쉽게 더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아기들을 데려오는 옆 친구들 등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등, 이런 모습을 아이들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일으키다니. 더 고민했어야 했었는데. 너무 쉽게 시작해버린건 아닐까.

엘레나

나한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고 있다. 쿡이 본적이 없어서. 먹고 싶은 과자를 안 먹어 본적이 없어서. 내 어린 시절을 그랬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처음에 아이들이 과자를 향해 자신의 동생 손을 내밀때(자신이 먹으려고 하는건지, 진짜 동생을 주려 하는 건지 꼭 어린 동생들을 데려 온다), 과자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갔다. 그 다음엔 미안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나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마리나

12월이 되기전에 한방 먹은 일중에 하나였다. 우리들은 중간평가 이후로 덤프사이트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조금 괜찮은 것을 주자고 생각해서 사탕말고 작은 비스킷 과자를 들고 가서 나누어 줬는데 그 모습이 충격적이였다. 처음보는 아이들과 몇몇 부모님 심지어 갓난애기까지 데리고와서 과자를 달라고 줄을 섰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너무 당황하여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우리한테는 비슷한 것일지 몰라도 여기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거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하고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실행해야겠다고 느꼈다.

에밀리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김민철



개인에세이 보다는 나의 생각을 적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덤프사이트 에세이인 것 같다.

활동을 할 때 마다 무엇인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던져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매번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다보니 그것을 받는데 급급하면서 이해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더 더욱 덤프사이트에 대해서 적거나 말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다.

지금 에세이를 적으면서도 무엇을 적어야 할 지 모르겠다.

어찌됐건 이러한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는 곳이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곳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제는 이러한 고민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활동 기간 동안 친한 친구와 같이 다음 번에 만났을 때

어색하거나 안 만난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조금 더 친해지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김혜지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김혜지

덤프사이트를 처음 갔을 때 Left side로 가는 길목 앞에 한 집을 방문했었다. 그 집 아이가 팬티를 안 입고 바닥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어서 롤리가 '아리아나~팬티~' 라고 외쳐서 한참을 웃었는데 이제 아리아나는 잘 걸어다니고 우리를 보면 수줍게 집 안으로 도망간다.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덤프사이트와 함께한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으로 깨달는다.

덤프사이트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다. 한 어머님께 평소처럼 '잘 지내셨어요?'라고 여쭙았는데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마히랍(어렵다)'이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사실 나는 그분의 삶을 아주 잠깐 기웃거린 것뿐이었는데 심장이 앓는 소리를 낸다. 또 한 아이가 심하게 다쳤을 때 간단한 상처 치료 후 아이의 어머님께 기억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오늘 아이 발 씻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고 다음에 오면 아이는 신발도 없이 흙과 쓰레기 위를 뛰어다닌다. 짧은 단어간의 소통이지만 덤프사이트에서는 모든 순간들이 강렬하다.

나는 지미총장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쓰고 있는 시간과 돈은 분명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거야'라고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번 마음을 다잡는다. 아니야, 내가 개미똥구멍만큼은 잘하고 있는 게 있을거야.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덤프사이트를 찾아간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손과 발을 씻기고, 앉혀서 알파벳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덤프사이트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덤프사이트는 내 삶 속 어딘가에 지울 수 없는 선명한 색으로 나와 계속 함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억들과 함께 덤프사이트 또한 점점 작아질지도 모르지만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 그 얼굴들 하나하나 잊지 않도록 살아가는 건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나의 결심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이해진



콧물에 대하여

누가 정해준 것은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코짙짙이 아이들 코를 흥!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맡게 됐다. 손수건이나 손이나, 물티슈로 아이의 코를 한쪽 구멍씩 막고 흥!하게 한다. 따갈로그어로 "코를 풀어!"라고 하지 않아도 "흥!"만 외쳐도 아이들은 용케 알아듣고 코를 푼다. 보통 아이들은 "Ayaw(싫어)!"를 외치며 도망가기도 한다. 풀고 나면 시원해 할 거면서.. 근데 내가 어릴 때도 그냥 마시는 편을 선택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니까. 코 흘리는 것, 감기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감기를 너무 오래, 자주 오래 앓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주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콧물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보다도 현저하게 높다.

코디네이터 김한테 이에 대해 물어보니, '날씨가 추운 시즌이라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아이들의 위생 상태도 한 원인이 될 것 같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긴다고 해도 덤프사이트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놀러다니는 탓에 아이들의 손이나 몸은 금방 더러워지고 만다. 감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감기는 가벼운 질병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덤프사이트 갈 때마다 밟히는 유리 조각, 의료 폐기물 더미를 볼 때마다 섬뜩섬뜩하다. 혹여나 아이들이 밟거나 넘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얼마 전, 한 아이가 캔을 밟아 발바닥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은 전보단 많이 아물었지만 아직도 상처 주변이 부어있다.

잘 모르겠다.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

오늘도 아이들 콧물만 닦아주고 있다.



PUGARO
DAYCARE CENTER

1회 (4일) 동물관련 영상, 버스 놀이 /WEST DAYCARE CENTER

Nov, 4th



이번주 데이케어센터의 커리큘럼에는 동물과 관련된 수업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동물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동물들의 소리가 녹음된 영상과 이러한 소리를 재미있게 노래로 만든 영상까지 총 2개를 준비하였다. 영상들을 틀어주면서 아이들과 하나씩 따라하는 식으로 가르쳐주었다.

1회 (4일) 동물관련 영상, 버스 놀이 /WEST DAYCARE CENTER

Nov, 4th



영상 수업이 다 끝난 후에는 밖으로 나가 10월 달에 준비했으나
진행하지 못 했던 버스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2회 (5일) 색종이목걸이 만들기/ EAST DAYCARE CENTER (첫 방문)

Nov, 5th



푸가로 학교 안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수업을 하였다. 어떤 것을 하면 좋을 지 찾다가 '간단하게 색종이를 이용하여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나와 준비해서 잘라간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신 덕분에 어려워 하던 아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반응도 좋았다. 이렇게 우리는 WEST DAYCARE CENTER에서의 수업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3회 (11일) 동물모양 색종이 접기 / EAST DAYCARE CENTER

Nov, 11th



11월 둘째주의 커리큘럼은 색종이를 이용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띠들은 지난 주에 했던 동물 영상과 연계시켜서 동물을 접기로 결정하였다. 아이들의 나이가 3~4세로 어린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단하고 직접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동물들을 찾았다. 우리는 돼지, 고양이, 개 3가지를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만든 후 색 도화지에다 붙여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것을 들고 갈 수 있게 하였다.

4회 (12일) 동물모양 색종이 접기/ EAST DAYCARE CENTER

Nov, 12th



East 데이케어센터에서도 West데이케어센터에서와 같이 동물 색종이 접기를 하였다. 지난 주 첫 방문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12일부터 오전, 오후 두 번의 수업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준비물들을 준비해갔다. 오전 수업은 김,마리나가 선생님께서 나서서 수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롤리, 엘레나가 진행하였다. 지난 주와 비슷하게 수업에 대한 적극성과 반응이 너무 좋아 힘들 수 있었던 두 개의 수업을 생각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8일 이미 사용된 빨대를 재활용한 목걸이, 팔찌만들기 /WEST

Nov, 18th

셋째 주에는 이미 사용된 빨대를 재활용하여 이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기로 하고 준비물을 가지고 West 데이케어센터에 갔다. 하지만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 못 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다. 사실은 우리가 West 데이케어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마리에타 선생님의 메시지를 늦게 보는 바람에 오늘 수업이 없는 것을 모르고 푸가로에 갔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그 날 데이케어센터들 간의 미팅으로 인해 모든 데이케어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하셨다. 준비를 많이 했었고 YMCA volunteer Jake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아쉬운 날이었다.



사진이 없어요....

5회 (19일) 이미 사용된 빨대를 재활용한 목걸이/ EAST DAYCARE CENTER

Nov, 19th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중, East 아이들에게도 이름 목걸이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West 데이케어센터의 이름 목걸이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준비했다. 이 날은 롤리와 김이 중간평가를 위해 팡가시난을 방문하실 안양YMCA 김보경간사님을 마중하기 위해 마닐라에 간 날이었다. 그 둘을 대신하여 YMCA volunteer Choco, Emong, Kiehl, Teddy, Scholar인 Louie가 활동에 함께 해주었다.

5회 (19일) 이미 사용된 빨대를 재활용한 목걸이/ EAST DAYCARE CENTER

Nov, 19th



재활용에 관한 수업인 만큼 우리가 쓰고 버리는 빨대와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에게 왜 재활용을 해야하는 지, 재활용된 빨대로 이쁜 악세사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덤프사이트 사진을 활용하여 PPT를 만들고 쓰레기와 재활용과 관련한 환경 교육에 대한 대본을 썼다. YMCA staff인 Marvin이 따갈로그어 번역을 도와주었고 엘레나가 수업을 진행했다.

5회 (19일) 이미 사용된 빨대를 재활용한 목걸이/ EAST DAYCARE CENTER

Nov, 19th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쓰레기와 재활용에 관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빨대를 이용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수업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띠들과 학부모님들도 다시 한 번 재활용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이케어센터 개인 소감 / 김민철



10월 달에는 숨어 있었다면 11월은 빛을 보러 땅 위로 올라왔다. 11월 시작부터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하다보니 수염쟁이 아저씨인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 같았다. 뭔가 내가 밝게 웃고 신나니 아이들도 그것에 영향을 조금은 받는 것 같았다. 매번 갈 때 마다 학습 준비와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힘들지만 막상 가서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솔직히 아이들과 놀아주고 할 때는 내 팔이 여러 개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기가 다 뺏기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놀았던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더 놀자고 팔과 다리를 잡고 늘어질 때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진다.

이럴 때면 내가 힘들었어도 애들이랑 잘 놀아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인 활동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쌓을지 고민해야겠다.

데이케어센터 개인 소감 / 김혜지



데이케어센터 개인 소감 / 김혜지

말아야 할 데이케어센터가 하나 더 늘고, 수업이 2개 더 늘면서 확실히 우리는 더 바빠졌다. 보고서를 위해 푸가로에서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는데, 때때로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웃음이 아니라 피곤에 찼은 웃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주객전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던 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하다.

특히 푸가로를 갈 때 YMCA Volunteer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다. 다들 엄청 손재주도 좋고, 어린 형제나 사촌들이 많아서 아이들에 대해 빠삭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힘들어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었다. 귀찮기도 하고 피곤할텐데 우리를 도와준 많은 Volunteer들은 아이들과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를 도와준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데이케어센터 개인 소감 / 이해진



데이케어센터 개인 소감 / 이해진

이번 달부터 새로운 데이케어 센터(Pugaro East daycare center)에서 수업을 하게 됐다. 처음 가보는 곳, 처음 보는 아이들인지라 많이 어색했다. 심지어 원래 가던 데이케어센터가, 그곳 아이들이 그림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생은 새옹지마라 했던가. 이러한 첫 인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East Daycare center만의 즐거운 분위기가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이다.

East daycare center 아이들은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이다. 종이접기를 하는데,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나 이만큼 잘했어요!"를 외친다. 그만큼 우리 수업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수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이 나게 한다. 담당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시다. 수업하는 내내 우리를 도와주시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간식을 꼭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네.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하하).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우리 수업에 매우 협조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던 수업도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끝났다.

그전까진 Daycare center의 꼬마 친구들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저 수업의 대상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수업을 잘 끝내면 그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가 이 아이들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같이 놀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순간순간을 즐겼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수업을 이루고 있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더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같다. 라온아띠.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이 여기 푸가로에 있다.



PUGARO
GREEN HOUSE PROJECT

Green House!



태풍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활동지, **그린하우스**. 라온아띠 14기는 11월부터 그린하우스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 그린하우스 활동은 매주 금요일에 13기가 진행했던 장소와 동일한 Pugaro Intergrated School 뒷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4기 팡가시난팀은 12기부터 이어졌던 그린하우스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그대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린하우스를 해야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팡가시난은 필리핀 안에서도 '방우스'라는 생선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푸가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방우스를 생산하며 삶을 꾸려나간다.

그리고 푸가로의 토양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등등의 이유로 푸가로 주민들은 채소를 많이 재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채소의 1일 권장량은 350g이지만 푸가로 주민들에게 있어 채소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귀하고 비싼 재료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푸가로 지역 내의 채소의 빈곤, 영양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제안된 그린하우스.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그린하우스를 가지고 만나거나 대화하는 건 많지는 않지만 이 그린하우스를 매개체로 푸가로를 좀 더 알아가고 지역과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린하우스는 푸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캠페인이다.

우리는 그린하우스가 아띠들만의 활동으로 굳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재고했다.
라온아띠 14기는 팡가시난에 온 5번째 깃수팀이다. 팡가시난에 오는 마지막팀이 될 15기, 그리고
라온아띠가 없어도 그린하우스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그린하우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지속하기, 관계맺기

지난 13기 평가시난팀이 그린하우스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Pugaro Intergrated School의 ‘Back to school green cleaning program’에 참여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아 Pugaro Intergrated School이 다구판시가 주최한 모범학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기 전인 5월에 13기 평가시난팀이 학교 선생님들과 만나서 라온아띠가 진행하는 그린하우스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등을 계기로 선생님들은 감사하게도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계신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 선생님께서 본인의 반의 아이들이 그린하우스를 직접 돌보게 하셨다.

필리핀의 정규과목에는 Gardening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모든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 뒷마당에 있는 밭을 직접 가꾸보는데 그린하우스 또한 학교 아이들 손으로 가꾸게 하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아이들 및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린하우스를 둘러보며 그린하우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14기 평가시난팀은 이렇게 그린하우스가 라온아띠만의 활동이 아님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그린하우스가 궁극적으로 학교라는 ‘장소’를 넘어 더 많은 푸가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Nov, 13th



처음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던 13일, 우리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린하우스에 쌓여 있던 많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그린하우스’라는 새로운 활동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20일) 땅 고르기, 흙 나르기 with 보경간사님, 에몽

Nov, 20th



평가시난팀의 지역훈련을 담당하신 안양YMCA의 보경간사님과 농사 경험이 많은 YMCA Volunteer 에몽이 우리와 함께 그린하우스 활동을 도와주었다. 남아 있던 쓰레기를 정돈하며 땅을 고르고 좋은 토양을 퍼내서 그린하우스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린하우스 개인 소감 / 김민철



일단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활동이고 2번 밖에 실행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하기가 힘든것 같다.그리고 사전에 코디네이터 킴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활동이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13기가 했던 곳에 그대로 하는 것인데 태풍때문에 부서지는 바람에 우리 14기가 새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번 달에는 두 번 가서 주변정리 및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 12월에 빠르게 마무리 지어서 잘 된 상태에서 15기에게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린하우스 개인 소감 / 김혜지



그린하우스 개인 소감 / 김혜지

코디네이터 김의 계획 아래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를 하면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처음으로 흙과 마주하며 자연과 생명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일하는 동안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다)

‘한 입이면 끝날 토마토가 이렇게 많은 손을 거쳐 생산된다니, 사실 그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값싼 가격의 토마토는 어디서 오는 걸까?’와 같은 생각도 든다. 특히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 ‘밀양 아리랑’ 속 할머니들이 떠올랐다. 나는 이거 조금 하고 이렇게 힘이 든데. 딱 심은대로 되돌려 주는 정직한 흙을 사랑으로 가꾸고 계시는 한국의 많은 농부님 들께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 처음 해보는 일들뿐이지만 앞에서 이끌어주고 덜렁거리며 실수를 저질러도 웃으면서 용서해주는 코디네이터들, 라온아띠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게되어 감사하다.

이 그린하우스 또한 13기분들의 좋은 관계맺음으로 인해 행운처럼 학교 아이들과 그린하우스와의 연결고리가 생겼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알리기, 관계 맺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새긴다.

그린하우스 개인 소감 / 이해진



그린하우스 개인 소감 / 이해진

인수인계 보고회 때 13기가 그린 하우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린 하우스를 진행한다고 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과연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김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일단 따라가 보았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다. 어느 순간부턴 무엇이 됐든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다.

우리 바람대로 모종이 아직까진 잘 자라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그린 하우스 자체 말고도 푸가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우리 관상용 식물을 키우고 있지 않다. 그린 하우스의 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겠다.

두 번째 장



중간평가 이야기

중간평가 이야기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팡가시난팀의 중간평가가 있었다. 왼쪽 위부터 한국YMCA연맹의 이은솔 간사님, 국민은행 사회협력부의 김태윤 대리님, 우리의 지역 훈련을 담당하신 안양YMCA의 김보경 간사님이 팡가시난을 찾아오셨다.

중간평가 이야기



중간평가 발표회에는 세 분과 필리핀 YMCA 연맹의 총장님이신 Sir 팍스와 General Secretary이신 아떼 마르셀, 평가시난 YMCA 총장님이신 Sir 지미가 참여하셨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한 PPT와 영상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계획과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평가 이야기



중간평가 이야기



안양 YMCA의 보경간사님은 중간 평가가 시작하기 전, 19일에 오셔서 팡가시난 14기는 간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특히 보경간사님은 팡가시난에 처음으로 온 라온아띠 10기 선배님이시기도 하다. 팡가시난 YMCA와 안양 YMCA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며 '지속가능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경간사님과 지내며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을까?

우린 장난식으로 중간 '부담' 평가라고 했다. 그동안의 우리 활동이, 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한편으론 좋았다. 놓치고 있던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 다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진정 부담이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10기 팡가시난팀' 보경 간사님의 존재였다. 간사님이기 전에 전 기수 선배님이셨다. 혹시나 우리가 잘못 하고 있다면 실망하실까봐, 우리가 제대로 이어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됐다. 다행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해 주셨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 우린 14기, 5번째 팡가시난팀이기에 이제 팡가시난 YMCA로 라온아띠의 활동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라온아띠가 더이상 활동하지 않아도 이곳 유스들이 우리의 활동을 지속하도록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간 '부담' 평가가 맞는 것 같다. 하하.

마리나

중간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보낸 시간들이 당시에는 고난의 행군마냥 힘들었지만, 세 분이 오셔서 받게 된 행복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특히 2년 전, 라온아띠 10기로 평가시난에 오셨던 보경간사님과 보냈던 일주일이 기억에 남는다. 보경간사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활동하셨던 덤프사이트와 푸가로를 갔을 때, 마치 간사님이 일주일 전에 오셨다가 다시 오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로라'를 외치며 말 그대로 달려나와 간사님을 반겼다. YMCA 사람들에게도 보경간사님은 이미 '가족'이었다.

보경간사님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웃게 하고 즐겁게 했다.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주시는 간사님을 보며 처음에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엘레나

라온아띠 활동에서 어찌보면 아띠들에게 가장 긴장되면서 즐거운? 시간인 것 같다.
원래 중간평가에서 중간격려방문이라고 말을 바꾸긴 하였지만 느끼는 부담감은 마찬가지로
같다. 중간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중간중간 힐링타임이 많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
였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마무리 지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간사님들을 보아서 기분
이 좋았다.

에밀리오

세 번째 장



그 외의 이야기

리더십 트레이닝 in San Carlos



San Carlos지역 고등학교 학생회(SSG)를 대상으로 팡가시난 교육부와 팡가시난 YMCA가 주최한 리더십 트레이닝에 라온아띠 14기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리더십 트레이닝은 이틀에 걸쳐 50개 학교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Team Building’을 주제로 팡가시난 YMCA가 준비한 시간에 한 세션을 담당했다.

리더십 트레이닝 in San Carlos



둘째 날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라온아띠 14기의 중간 평가 영상을 통해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빈곤'의 다양한 개념과 END POVERTY CAMPAIGN이 비롯된 SDGs에 대해 알렸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I have poverty in _____, but I have _____'라는 문장을 가지고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빈곤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더십 트레이닝 in San Carlos



두 번의 여행 - 바기오(Baguio)



평가시난 아카데미 올림픽의 우승자들은 바기오에서 열리는 북부 루존 아카데미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다.

지미총장님께서서는 라온아띠 14기와 코디네이터인 롤리와 김도 함께 바기오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다.

지미총장님의 둘째 따님 Kristine과 함께 바기오를 구경하며 우리는 오랜만에 휴식을 만끽할 수 있었다.

두 번의 여행 - 바기오(Baguiio)



두 번의 여행 - 산타크루즈(St. Cruz)와 말라시키(Malasiqui)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빵긱캠프의 사전 답사를 위해 라온아띠 14기는 보경간사님, 팡가시난 YMCA Staff, Volunteer들과 함께 산타크루즈를 둘러보았다.

이후 보경간사님께서 라온아띠 10기로 팡가시난에 계셨을 때 홈스테이를 하셨던 말라시키라는 지역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이날은 YMCA의 Swimming Pool을 담당하고 계신 Sir Richard의 따님이 생일을 맞아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았다.

두 번의 여행 - 산타크루즈(St. Cruz)와 말라시키(Malasiqui)



네 번째 장



우리의 이야기

에밀리오의 이야기



에밀리오 이야기

11월은 나에게 어둠속에서 햇빛을 보게 해준 달이었다. 몸과 마음이 정신이 없었던 10월과 다르게 11월부터는 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긍정적인 파워가 나오게 되었다. 아마도 적응을 한 것 같았다. 현지 애들과도 부쩍 친해지고 어딘가에 소심했던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원래의 나로 돌아오게 되었다. 뭔가 엄청 신이 났고 마지막에는 중간격려방문으로 힘도 들긴 했지만 마무리 짓고 나니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벌써 나도 4개월 중에 반을 넘어 섰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과 아쉬움이 공존하였다.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힘을 내서 마무리도 즐겁게 잘 했으면 좋겠다.

엘레나의 이야기



엘레나 이야기

사실 이번 달을 되돌아 봤을 때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눈 앞에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라온아띠는 'Friends of Asia'이다. 되돌아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팡가시난 라온아띠는 덤프 사이트, 푸가로와 같은 활동지 뿐만 아니라 YMCA의 많은 Volunteer들, Staff들과 매일 보고 붙어 지낸다. 팡가시난 사람들은 나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셨다. 요즘 같이 매일 바쁘게 지내다보면 평소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잊게 된다. 처음 우리는 놀랍게도 통성명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서로의 옆에 앉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참 신기한 것이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며 이 곳에 왔고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우리 누구에게도 싫은 기색이나 불편함을 내비치지 않았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게 있다. 과연 '친구'란 무엇일까.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소중한 순간들을 보낼 때마다 나는 지금 '좋은 친구'인지 되돌아 보게 된다. 가끔씩 저지르는 실수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사랑받는 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닌 내게 먼저 나서서 나에게 다가와준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친구'가 무엇인지 매일 배우고 새기고 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마리나의 이야기



마리나 이야기

이어폰을 내 손으로 자르는 일이 발생했다. 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에 난 아띠 하우스가 떠나가라 절규했다. 으악.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혹시나 테이프로 붙이면 소리가 나올까 응급처치를 해봤지만 전선은 이미 끊어져 생명을 다한 상태였다.

더불어 내 멘탈도 끊어졌다. 3개월차. 희미한 불꽃처럼 간신히 버티고 있던 내 멘탈이 그렇게 나가고 말았다. 이후로 '어떻게 하면 내 멘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답답한 내 마음을 뺑 뚱리게 할 것이 무엇일까.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찢긴 내 마음을 위로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없었다.

어찌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손을 잡은 건 다름 아닌 혜지였다. "나갈까?" "나가자." 롤리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우린 다구판 밤거리로 향했다. 속사포처럼 수다를 떨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이어폰은 기억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지금 와서 생각하건데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덕분에 행복한 것 같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결국 위로 하는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반대로, 물질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내 손으로 자를 수 있는 것이 물질이고 한 순간에 쓸모가 없어지는 것도 물질이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온기는 영원하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나눈 시간, 기억은 영원하다.

어쩌면 당연한 이 말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온 것 같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만 기억하고,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목매지 않았다. 관계를 끊는 것. 나한테 참으로 쉬웠다. 5개월, 짧고도 긴 이 시간. 어쩌면 5개월만 같이 살면 그만이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 관계, 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린 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만들고 있다. 그 시간이, 그 추억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고 있다(얼마 전 아띠 하우스에 우리 다섯 명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 두었다). 포기하기엔, 무 자르듯 잘라내기에 우린 서로에게 정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 이제 함께 보낼 날보다 헤어질 날이 훨씬 가깝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들과 부대끼는 시간이 분명 그림겠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이들이 분명 그림겠지.



감사합니다, 다음달에 만나요!